

2020. 12. 21

백신접종, 美부양책 타결 기대 유지 등으로 가산금리 하락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- [유통시장] 미국·영국 등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팬데믹 억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재정부양책 기대 관련 위험자산 선호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(17일 기준)하면서 또 크레딧물 가산금리 및 CDS는 하락

-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: IG, HY하락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-2.4bp, HY -12.8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는 대체로 축소(-9bp~+2bp)
- 미국의 소비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완전히 악화(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보다 2만 3천명 늘어난 88만 5천명을 기록,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)되고 연준의 채권 매입 정책 동결 등의 요인이 엇갈린 가운데에도 美 재정부양책 관련 합의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(17일 기준). 시장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영향 등으로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및 CDS는 하락

<그림1> 亞 CDS 프리미엄 추이



자료: KCIF, Bloomberg

- 亞 CDS 하락 : 일본 -0.4bp, 중국 -1.7bp, 한국 -0.1bp, 말련 -2.4bp, 태국 -1.6bp, 베트남 -2.5bp, 인니 -2.2bp, 필리핀 -1.0bp

- [발행시장] 12월 셋째주 亞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\$18억 발행 (12월 둘째주 \$41억 발행)

- 12월 셋째주는 12월 첫째주에 이미 100억불 규모가 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총 18억불, 4건 발행. 지난주 유통시장 거래량은 많지 않았으나, real money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가 관찰되는 가운데 발행에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(JP Morgan)
- 21년 1월 첫째주 다양한 국가의 사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1월 총 발행규모는 작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인 400억불 예상(JP Morgan)

<표 1> 주요 亞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발행기관	종류	신용등급	발행일	만기年	통화	발행액억	발행금리	주문억	비고
Wynn Macau	RegS	+/	20/12/15	28/08/26	USD	7.5	5.146	-	-

<표 2>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19년말	12/11일	12/18일
외평채'29	10	6/19/2029	47	32	34
산업은행'24	5	10/1/2024	51	39	37
국민은행AT1	5	7/2/2024(1st call)	206	248	239
한국서부발전'22	3	7/22/2022	59	39	38
한국전력공사'24	5	6/24/2024	68	43	40

<표 3> 亞 주요국 CDS

	'19년말	12/11일	12/18일
한국	22	22	22
일본	20	15	15
중국	31	30	28
태국	23	36	34
인니	62	70	67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- [미국 IG 발행시장] 12월 셋째주 IG발행시장은 지난주 대비 감소한 총 \$21억 발행(전주 \$206억)

-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IG발행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, 낮은 미국 국채금리 및 회사채 스프레드에 힘입어 12월 이후 미국 IG채권 발행규모는 450억불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250억불을 크게 상회
- 2021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발행시장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며, 1월부터 상당한 규모의 발행물량이 예상(JP Morgan)